

'전주대사습놀이' 대장정 돌입한다

9일 공도부 경연 시작으로 6월 8일까지 전국대회·학생전국대회 개최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악 경연대회인 전주대사습놀이(전주대사습놀이)가 공도부 경연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전주시와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오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전주대사습놀이와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통예술 경연과 공연 학술포럼 등을 아우르는 전통예술의 향연인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및 제44회 학생전국대회를 개최한다.

'태평안락(太平安樂)'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대회는 첫날 공도부 경연을 시작으로 관소리 명창부, 농악부, 무용 명인부, 가야금 병창부 등 총 1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국 각지의 국악인들이 참여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 전국대회도 관소리부, 농악부, 관악부 등 10개 부문에서 열려 미래 국악 인재들의 등용문 역할을 할 예정으로, 일반부와 학생부를 아우르는 폭넓은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대회에서는 '동락(洞樂)'을 주제로 한 전야제와 축하공연, 기획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돼 시민과 관광객이 전통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경기전 광장



제52회 전주대사습놀이 포스터

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전야제 행사로 공식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되고, 24일부터 6월 5일까지 한옥마을 전주대사습놀이에서 대대습놀이 장원자와 명인·명창들이 대거 참여하는

'장원자의 밤(수척천석)' 등 기획 공연이 네 차례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는 공동체가 만든 무형문화유산 구축의 실천적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 7일 오후 6시부터는 대회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소통하는 비숍션' 행사가 진행된다.

시는 제52회를 맞은 올해 전국대회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악의 미래를 짊어질 새로운 국악 인재들이 발굴되고, 200년 전통의 국악 대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대사습놀이 경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면서 "전주를 찾는 방문객들이 전통예술의 멋과 전주의 매력을 동시에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연에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063-252-679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권희성기자



장수군은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타악전문 예술단체 방타타악기(SCHOOL: 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공연 성료

장수군, 세계 각국 다양한 타악기 한자리서 만나 호응

장수군은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타악전문 예술단체 방타타악기(대표 방승주)의 SCHOOL: 타악기가 학교를 점령하다'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학교생활을 모티브로 한 공연은 드럼과 북뿐만 아니라 마림바, 비브라폰, 봉고 등 세계 각국의 다양한 타악기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졌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타악기들의 정교한 울림과 역동적인 리듬은 지역 내 초등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농구공, 금식판 주걱 등 일상적인 물건을 활용한 이색 퍼포먼스가 함께 펼쳐지며 색다른 재미를 더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다양한 타악기의 소리가 인상적이었다", "일상 물건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어 신기했다"고 소감

을 말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단순 관람을 넘어 연주자와 함께 손뼉을 치고 무릎을 두드리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몰입도를 높였으며 학생들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며 자연스럽게 공연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정우 군수 권한대행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악기와 공연을 직접 체험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음악, 뮤지컬, 연극 등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앞으로도 락 뮤지컬 등 풍성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공연과 관련한 자세한 일정은 장수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문화체육과(063-350-2318)로 하면 된다.

/장수=고관호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국립공원공단, 협약

전북문화관광재단과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 본부가 국립공원 자원과 문화예술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북한문화공간 하안양읍에서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와 자연·역사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이 보유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에 문화예술의 감성을 더해 도민들에게 차별화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향유 확대, 자연·역사 자원 연계 콘텐츠 공동 기획 및 운영, 지역 자원 홍보 및 대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협약의 첫 실천 사례로 하안양읍에서 기획전시를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 "낮엔 공연, 밤엔 별 이야기"

9일 마력사지 '선율속으로'·왕궁리유적 '담소' 진행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무대를 예술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를 선보인다.

익산시는 오는 9일 세계유산 활용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26 백제역사유적지구 선율속으로'와 '백제왕궁에서의 담소'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유산인 마력사지와 왕궁리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9일 오후 3시에는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마력사지 석탑을 배경으로 클래식 공연 '선율속으로'가 펼쳐진다. 백악아트 연주자 이용기와 루스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은 이색적이고 풍성한 선율을 만들어내며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7시에는 왕궁리유적에서 백제왕궁에서의 담소'가 진행된다.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가 무대에 올라 백제왕궁으로의 시간 여행을 주제로, 우주와 별자리에 대한 인문학적 이야기를 시민들과 나눌 예정이다.



시는 오는 30일 '선율속으로'와 6월 13일 '백제왕궁에서의 담소'를 이어가며, 익산 고유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품격을 담은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청 문화유산과(063-859-737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세계유산인 마력사지와 왕궁리유적을 단순한 관광 공간을 넘어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한국화 동아리 '묵선회' 사제전 개최

김제시립도서관은 한국화 동아리 '묵선회'가 구산 김승화 선생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제전을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완주군 이서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열린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화에 빠져들수록 삶은 평안하고 행복하다'를 주제로 구산 김승화 화백과 제자 9명이 참여해 총 2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통 수묵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들은 먹의 농담과 담체의 조화를 통해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있고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국화는 먹의 농도 조절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음양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로 여기에 얽은 채색이 더해지면 우리 자연경관이 더욱 강렬

하고 생동감 있게 재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도 관람객들은 마치 구름 위로 학이 비상하는 듯한 환상적인 장면과 함께 한국화 특유의 여백과 운치를 경험할 수 있다.

묵선회는 김제시립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한국화 강좌에서 시작된 동아리로,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이 참여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회원들은 각종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전주 소리문화의전당과 김제시 예술회관 등에서 다수의 전시를 개최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스승과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제전으로 그 의미를 더한다.

/김제=곽노태기자

▶ 이 사람 - 민병록 동국대 영상대학원 명예교수

"전주국제영화제 위원장은 제 운명"

영화제 세계에 널리 알린 10년의 기록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개최 후 영화제 진행 상황을 둘러 보고 수준 높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상 영화인인 민병록 전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76)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주국제영화제 현장을 찾은 민병록 동국대 영상대학원 명예교수는 "후배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것"이라며 웃었다. 고령에도 눈빛은 여전히 형형했다.

전주국제영화제 4회부터 13회까지, 10년을 집행위원장으로 영화제를 이끌었던 그의 이야기가 시작됐다.

#우기의 영화제를 떠났다

사실 처음부터 민 교수가 집행위원장 자리에 오른 건 아니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초창기 혼란 속에 있었다. 제대로 기틀이 잡히지 않은 초창기 프로그램이 영화제 준비기간 중간에 떠나는 일이 생겼고, 영화제는 존재 기로에 섰다. 예산도 적지 않았고 전주라는 도시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국제 영화제 행사가 조용히 사라질 위기였다.

"50가 앞쪽 전주국제영화제를 살려달라고요." 민 교수는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나와

#매년 새로운 '한 방'을 만든다

민 교수가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처음 한 일은 영화제 사무실에 과연 나와 있던 공무원 2명을 돌려보내는 것이었다.

"간신히 온 것 아닙니까? 자유롭게 일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는 매년 세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한 방'을 찾아 세계를 누렸다. 영화제는 단순히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북한 영화를 상영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교류가 가능하

던 시절이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협력해 북한 영화를 전주 스크린에 올렸다. 한국 어느 영화제도 시도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미지의 영화들을 특집으로 엮어 소개하고, 작은 예산이었지만 세계에서 인정받는 감독과 배우들을 직접 발로 뛰며 섭외했다.

#쿠바 감독들을 태운 비즈노스식

민 교수가 집행위원장 재직 10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 꼽은 건 아시아 최초로 쿠바 영화 특별전이였다.

쿠비는 상업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 순수 예술 영화만 만들기 때문에 작품의 질이 아주 높다. 민 교수는 수교도 없던 당시에 쿠바 감독들과 어렵게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섭외를 마쳤고, 작품 필름도 미리 받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쿠비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미국을 경유해야 하는데 미국이 쿠바 감독들에게 비자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자



관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헝가리 거장을 먼저 알아보다

세계적인 헝가리 감독 벨라 타르(Bela Tarr)를 전주에 처음 소개한 것도 민 교수였다. 201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현장에서 <토리노의 말>이라는 작품을 보고 수상을 예상해 신제적으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그 작품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과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영화계가 벨라 타르에 주목했지만 전주는 이미 그를 먼저 데려온 뒤였다.

#영화기자재 100여 점과 영화자료 수천 점을 전주에 기증하다

10년의 임기를 마친 뒤에도 민 교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전주와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가 수십 년간 모은 카메라와 영화 기자재 100여 점, 그리고 방대한 영화 관련 자료 수천점을 전주 영화 도서관에 기증할 계획이다.

현재 건립 중인 전주독립영화관 내에 영화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며, 그의 소장품이 그 안을 채우게 된다.

끝으로 민 교수는 "영화인이 제 운명"이라며 후배들에 영화제가 매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전 세계에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